

동남아시아 시장 평가와 시사점

1.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

가. 종합 평가

- O 아세안 5는 모두가 성장하는 보험시장이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험시장을 상대 평가한 결과, 수요 측면에서는 베트남이, 공급 측면에서는 태국과 베트남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음
 -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과 보험수요 간의 정(+)의 관계에도 불구하고, 중산층 성장 여부에 따라 국가별 보험시장의 성장에도 차이를 보이므로,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외에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 불 평등 개선이나 도시화 등을 평가에 고려함
 -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 진입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행정 및 규제 투명성, 시장경쟁, 인적자본, 금융거래의 IT 침투율 등을 평가에 고려함
 - 한편, 수요와 공급 모두와 관련이 있고 양방향 평가가 가능한 인구구조 변화, 민영보험과 대체 관계인 사회보장지출은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보험수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고려사항임

〈표 Ⅲ-1〉 아세안 5 보험시장 평가

구분	말레이시아	태국	인도네시아	필리핀	베트남
보험수요	•	0	•	•	•
보험공급	•	•	0	0	•

- 주: 1)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
 - 2) '상 ●', '중 €', '하 ○'로 평가함
 - 3)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

나. 세부 평가

- 경제 규모에서는 인도네시아. 필리핀과 베트남이 좋은 평가를 받음
 - 인구지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. 경제지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경제지표는 1인당 GDP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고, 인구지표는 현재 인구와 2050년 전망치를 반영함

〈표 Ⅲ-2〉 경제 규모 평가

지표	말레이시아	태국	인도네시아	필리핀	베트남
경제 규모	•	•	•	•	•
- 경제	•	•	•	•	•
- 인구	0	0	•	•	•

- 주: 1)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
 - 2) '상 ●', '중 €', '하 ○'로 평가함
 - 3)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
- O 중산층 성장 측면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,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음
 - 불평등 개선은 태국이, 도시화는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베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 - 불평등 개선 지표는 지니 계수로 측정된 불평등 지수와 10년 동안의 불평등 지수의 변화를 반영하였고. 도시화 지표는 도시인구비율과 최근 도시인구 증기율을 반영함

〈표 Ⅲ-3〉 중산층 평가

지표	말레이시아	태국	인도네시아	필리핀	베트남
중산층	•	•	0	0	•
- 불평등 개선	•	•	0	•	•
- 도시화	•	0	•	0	•

- 주: 1)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
 - 2) '상 ●', '중 €', '하 ○'로 평가함
 - 3)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
- O 인적자본과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, 말레이시아, 태국,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남
 - 부패인식지수로 측정된 투명성 지표와 인적자본 지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, IT 침투율은 말레이시아, 태국, 필리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투명성 지표는 부패인식지수와 그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하고, 인적자본 지표는 인적자본지수와 중등 교육참가율을. IT 침투율 지표는 일반 상거래와 금융거래의 모바일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함

〈표 Ⅲ-4〉 인적자본과 시장 인프라 평가

지표	말레이시아	태국	인도네시아	필리핀	베트남
인적자본과 인프라	•	•	0	0	•
- 투명성	•	0	0	0	•
- 인적자본	•	•	0	0	•
- IT 침투율	•	•	•	•	0

- 주: 1)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
 - 2) '상 ●', '중 ●', '하 ○'로 평가함
 - 3)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
- O 시장경쟁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보험시장이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장인 것으로 평가됨
 -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시장집중도가 높고, 태국도 생명보험의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
 - 경쟁도 지표는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에서 활동 중인 보험회사의 수와 상위 5개 사의 시장집중 도(CR5)를 반영함

〈표 Ⅲ-5〉 보험시장 경쟁도 평가

지표	말레이시아	태국	인도네시아	필리핀	베트남
생명보험	0	•	•	•	0
손해보험	0	0	•	•	0

- 주: 1)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
 - 2) '상 ●', '중 ●', '하 ○'로 평가함
 - 3)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

2. 시사적

- O 아세안 5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의 사망 및 건강보장 수요가 증가하고, 도시기반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, 배상책임 등 손해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임
 -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에서는 저축 수요가 커서 보험시장에서 유닛링크 (Unit-linked)로 대표되는 투자형 저축상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
 - 그러나 가구주의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한 소득보장과 가계의 건강보장에 대한 중산층의 수요 증가는 사망·상해·건강보험의 확대로, 중산층의 주택 구매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증가는 손해보험과 신용· 보증보험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것임

- 수준 높은 인적자본과 IT 침투율. 활발한 시장경쟁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 접근하는 방식과 규제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
 - 외국 보험회사의 아세안 5 진출이 활발하고 시장경쟁도 치열하다는 점은 시장 진입이 어렵지 않음을 방 증하는 것이나. 보험회사는 시장 진입 시 경쟁우위를 확보할 상품과 채널의 선택. 인수합병 등의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보험상품 판매는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주도하고 있으나,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채널의 성장이 두드러짐
 - 한편, ASEAN으로 유입되는 해외 직접투자의 50% 이상은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아세안 5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도 아세안 5 투자방식과 시장 진출을 선택하는 데 고려할 요소임
 - 아세안 5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더불어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간접 투자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음
 - ASEAN은 태풍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므로(ASEAN 2023), 이 지역에 진출하는 보험회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사업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O 아세안 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지만, 향후 고령화 진행을 염두에 두고 연금과 건강은 물론 요양·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아세안 5의 사회보장지출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평균인 GDP의 7%에 미치지 못하고. 산업화와 수출지향형 경제 발전 단계에서 요양 및 간병에 대한 자원배분은 우선순위가 아니므로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큼
 - 다만, 요양·간병 서비스는 시설 및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
 -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의 해외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임
 - 그동안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은 대형보험회사의 전략적 옵션으로 여겨져 왔으나, 중·소형 보험회사도 해 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기임